

김경석 이사장 취임식

2021. 5. 10.(월) 14:00

# 취 임 사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 신임 이사장 김정석입니다. 우리나라 해양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단 가족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첫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5월 10일 바다 식목일입니다. 바다 속 해조류를 심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바다숲 조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생명의 보고인 바다 생태계를 살리는 날에 취임식이 열린 것에 소명의 무게가 더욱 깊이 와 닿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해양수산업 종사자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전문적인 역량과 올바른 선원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대한민국 해양수산업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은 '해양안전'이라는 토대 위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덕분에 선박과 선원의 안전, 나아가 어업인, 전 국민의 바닷길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피땀 흘려 구축하신 업적으로 공단이 국내 유일의 '해양교통안전 종합 관리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에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저 역시 앞으로 주어질 책임과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직원 여러분

공단은 우리나라가 해양안전, 나아가 해양안전강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위기를 기회이자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경영방침을 제시하고,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단의 경영목표와 전략방향을 계획대로 이행함과 동시에 공단 내·외부 환경 변화 요인을 정기적으로 분석, 보완하여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핵심가치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임직원들이 자증심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사가 곧 만사라고 합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구성원 간 신뢰도를 제고하고, 직군별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업무 분장으로 전 직원의 사기를 드높이겠습니다.

셋째, 해양교통안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양안전 인프라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이 수행해 온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과 'e-Nav(이내비) 구축',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 등 기존 사업을 유지·발전시키겠습니다.

세계적인 이슈인 친환경 선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해양안전 기술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경영방침과 제언이 공허한 구호로 머무르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걸겠습니다.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공단의 비

전 완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물론 현장의 애로에 귀 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명칭과 역할을 달리하며 42년을 이어왔습니다. 바다의 안전을 지켜온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늘을 다지며 내일을 열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사, 센터에서는 바다라는 큰 무대에서 국민과 고객을 만나 해양안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훗날 전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으로, 미래 세대의 희망으로 울창한 바다 숲을 이룰 것입니다.

‘해양교통안전’이라는 무거운 사명의 현장에서,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본격적인 콤사호 항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 경 석